

#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은주·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괴로운 자기인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의식이 낮은 개인에 비하여 알콜소비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Hull의 자기인식이론을 한국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이해하는데 적용해 보았다. 남녀대학생 985명에게 응답자의 배경정보와 자의식 척도, 긍정적/부정적 생활경험, 음주빈도와 양, 문제성음주를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경정보와 자의식 총점, 생활경험 평점점수 등을 음주행동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또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보다 자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은 자의식이 낮을수록, 부정적 생활경험을 많이 하고 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정도가 높고 문제성음주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술로 인한 문제를 지닌 가족력은 문제성 음주와 관련되었다. 여학생은 부정적 생활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고할수록 음주정도가 높고 문제성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학생활에서 참여도가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높았다. Hull의 이론이 가정하였던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간의 상호작용은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높은 자의식이 한국 남자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개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심리학적 이론들로 긴장 감소이론, 인지-사회학습 이론,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각 이론들을 살펴보면, 긴장감소이론(tension reduction theory)은 술이 스트레스나 긴장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은 이 효과를 얻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설명한다. 긴장감소이론은 술이 가지는 약물학적 효과가

불안으로 인한 추동상태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므로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되면 음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알콜이 음주자들에게 불안, 긴장을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연구들과(Sher & Levenson, 1982; Wilson, 1982) 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 불안과 음주행동간의 관계를 규

명할 수 있는 특정적인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her, 1987; Young, Oei & Knight, 1990). 인지-사회학습 이론은 기존의 긴장감소이론을 생리적인 추동상태에서 매개적 인지기제라는 용어로 재구성하여 정서적 반응성에 대한 술의 영향은 개인이 지각한 자기효율성과 이와 관련된 인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Bandura, 1986).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or vulnerability model)은 긴장감소이론이 개인의 다양한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갖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안, 음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한다. 연구결과 개인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긴장감소이론,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음주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음주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의 특성(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스트레스, 개인의 통제가능성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가 인간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예측되는 평가와 같이 자아와 관련되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ull, 1983; Higgins & Marlatt, 1975; Miller, Hersen, Eisler & Hilsman, 1974). 그러나 소음이나 전기쇼크 위협과 같이 자아와 관련되지 않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ull, 1983; Higgins & Marlatt, 1973).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 일반으로부터 알콜사용을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알콜사용이 괴로운 자기 인식 상태를 회피하고자 동기화된다는 Hull(1981, 1987)의 이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Hull은 Fenigstein(1975)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 개념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자기 인식이론(self-awareness model)을 이용하여 음주행동을 설명하였다. 자의식에는 개인차가 있어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고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의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동기나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질(trait)로서의 자의식은 개인이 자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안정적인 특질을 의미한다. Fenigstein(1975)은 자의식이 아래의 7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1. 과거, 현재, 미래 행동에 몰두(몰몰)하는 것
2. 내적 감정에 대한 민감성
3.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속성에 관한 인식
4. 내성적(자기관찰적) 행동
5. 자신에 관해 상상하거나 그려보는 성향
6.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식
7.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

자의식의 특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자의식에는 공적, 사적 자의식과 사회적 불안 등 세개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enigstein, 1975).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은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감정, 가치와 같은 내부적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Jung의 내향성 개념과 유사하나 내향적 사람이 개념, 사고(생각)와 같은 내적 세계로 이끌리는 것에 비해 사적 자의식은 자아에 관한 생각과 숙고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내향성과는 구별된다.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은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의 내부적 상태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다.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공적 자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매우 염려스러워 한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도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의식이 개인의 특질을 의미하는 반면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주의가 자아에 집중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의식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특질적 요인외에 거울이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상황적 변인에 의해서도 자기인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Hull(1983)은 알콜이 자기인식 수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기인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알콜소비를 조절한다고 가정한다. 자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가짜 주류(placebo beverage)와 알콜을 섭취하게 한 후 자아와 관련된 단어의 회상도 차이를 보았을 때 자의식이 높은 피험자들은 자아와 관련된 단어에서 의미있는 회상감소를 보였고, Exner의 문장완성검사를 이용한 자기인식 측정결과 알콜소비집단은 위약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1인칭 대명사의 상대적 빈도와 자아관련 문장의 빈도 모두 의미있게 감소되었다(Hull, 1981). 알콜은 자기인식과 간섭을 일으켜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을 억압하고 자기인식 수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Hull의 기본 가정은 성공, 실패를 시사하는 생활경험들은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사람들에게와는 달리 알콜소비와 좀 더 관련이 많으리라는 것이다. 개인적 실패가 없다면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자의식을 감소시키려고 동기화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알콜소비를 더 많이 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남성 사교성 음주자, 알콜중독자,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Hull과 Young(1983, 1986)은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에 비하여 실패 feedback에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실패 feedback이 자의식이 높은 개인에게서 낮은 개인보다 알콜소비와 강하게 연관되

는가를 연구하였다. 성공과 실패 feedback은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실험과제 수행 후 결과에 상관 없이 연구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피험자에게 무신할당하였으며, 현장연구의 경우에는 성공/실패의 의미를 가지는 긍정적/부정적 생활경험(life event)의 빈도와 이에 대한 영향력 평정을 측정하였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활경험외에 학업성적을 첨가시켰다. 긍정적/부정적 생활경험은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event)이 아닌 개인에게 통제가능성(controlability)이 있어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로 귀인(self-attribution)시킬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평정에서와는 달리 배우자의 죽음/실직, 교통혼잡과 같이 개인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생활경험들은 제외되며, 개인의 자아상에 성공, 실패감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Hull, 1986). 연구결과 자기인식 모델은 사교성 음주자들의 상황적 음주소비와 청소년의 알콜사용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치료된 알콜중독자들의 재발을 실생활에서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종단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알콜소비에 자기인식을 감소시키려는 내적기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Hull의 자기인식 모델을 한국 남녀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여 개인적인 실패를 시사하는 부정적 생활경험이 자의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집단과 낮은 대학생집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Hull의 이론이 적용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정도의 부정적 생활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대응양상을 나타내리라고 본다. 즉 자의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 부정적 생활경험을 할 경우 자의식 수준이 낮은 대학생에 비하여 실패감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인식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의하게 많은 음주행동을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7개 대학 남녀 대학생 98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남녀 구성은 남학생이 5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이 397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남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월 2-4회 빈도로 맥주 500cc 3-4잔 정도를 마시며 최대음주량은 맥주 500cc 5-9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월 1회 빈도로 맥주 500cc 2잔 정도를 마시며 최대음주량은 맥주 500cc 4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도구

각 응답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차례대로 완성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질문지 실시는 강의실에서 강의 시작전 2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행해졌다.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배경자료 질문지

응답자의 학년, 성별, 연령, 군복무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과활동이나 써클 및 기타 과외활동에 대한 참여도, 주관적인 학업성취도, 지난 학기 평량평균, 가족중 술로 인한 문제를 지닌 가족력 등이 조사되었다. 위의 변인들을 배경변인으로 설정한 것은 많은 연구(대한적십자사 보고서, 1988; 홍종필, 1989; Barnes, 1984; Donovan & Jessor, 1978; Hull, 1986; Chassin et al., 1988)에서 이런 요인들이 음주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지난 학기 평량평균은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경험외에 학업에서 느끼는 성공과 실패경험에 대한 지표로 삼기 위해 포함시켰다. 주관적인 학업성취도는 지난 1년(신입생의 경우 지난 학기)동안 응답자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가를 예/아니오의 2분 변인으로 선택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개인의 포부수준에 따라 좋은 성

적에 대한 기준이 달리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답자의 객관적 성적지표로 할 수 있는 지난 학기 평량평균(GPA)를 적어내도록 하였다.

### 2) 자의식 척도 질문지

#### (Self-Consciousness Scale)

전체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Fenigstein (1975)이 제작한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의식 척도는 사적, 공적 자의식과 사회적 불안울 측정하는 세개의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들은 응답자 자신을 기술해 주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인 5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인 1로 표시하게되어 있다(5점 척도 평정). 세 하부척도는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대로 제시된다. 한국대학생들에게 자의식 척도(Fenigstein, 1975)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ext{Alpha} = .77$ ). 요인분석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자의식 척도가 미국의 경우와 달리 다섯가지 하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Hull et al., 1986)에서 음주정도를 예측함에 있어 자의식 척도의 하부척도인 사적 자의식이 가장 예언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적 자의식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이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하부척도로 분석하지 않고 자의식 전체 총점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 3) 생활경험 질문지(Life Event Questionnaire)

자아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Negative self-relevant life events)과 자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Positive self-relevant life events)으로 구성되며, 각 경험에 대해 자신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3으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0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3인 7점척도로 평정한다. 생활경험 질문지는 Chassin, Mann, Sher(1988)가 미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자아에 성공, 실패의 의미를 함축하는 긍정적/부정적인 경험 14가지를 토대로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

강하는 남녀 학부생 200명에게 성공, 실패 생활경험에 대해 자유 응답식으로 기술하게 한 후, Chassin 등이 만든 문항 중 문화적 차이와 대학생에게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경험은 제외시키고 일부분항은 대학생에 적절토록 변경시켜 제작하였다.

#### 4) 음주양상 질문지

음주양상 질문지는 응답자의 평균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통해 알콜이용(alcohol use) 정도와 알콜남용(alcohol abuse)으로 인한 문제점들—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증상적 음주—, 기타 개인의 음주력, 음주동기, 음주시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가 등 2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와 양 측정에는 홍종필(1989)이 남자대학생 770명을 대상으로 평균 음주빈도와 양을 산출한 결과를 기초로 만든 음주양상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증상적 음주—문제성음주(problem drinking)—측정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 알콜개입척도(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Scale—AAIS: Mayer & Filstead, 1979)를 사용하였다. 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측정하는 8개 문항과 증상적 음주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합산하여 얻어진 값(최저치 0점, 최고치 13점)을 통하여 그 수치가 높을수록 문제성음주의 심각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 결 과

### 자의식 분석

한국과 미국의 남녀 대학생 자의식총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미국 남녀 대학생의 자의식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는 Fenigstein (1975)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후속 연구(Hull, 1983, 1986)에서도 일관되게 나와 이를 토대로 하였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의식 총점이 2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자의식총점이 평균 3점가량 높아 남녀 두 집단간 자의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 = -4.79, p < .001$ ). 여자대학생의 경우 사적 자의식은 남지대학생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공적 자의식( $t = -6.16, p < .001$ )과 사회적 불안( $t = -3.58, p < .001$ )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공적 자의식이 남자대학생보다 2점가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행동 분석

남녀대학생 집단간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있어

표 1. 한국과 미국 남녀대학생의 자의식 총점과 평균과 표준편차

자의식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한국 (N=564)	미국 (N=179)	한국 (N=392)	미국 (N=253)
	M SD	M SD	M SD	M SD
사적 자의식	36.8(4.9)	25.9(5.0)	36.8(4.8)	26.8(5.1)
공적 자의식	23.9(4.5)	18.9(4.0)	25.7(4.2)	19.3(4.0)
사회적 불안	18.4(4.8)	12.5(4.1)	19.6(4.7)	12.8(4.5)
전체 자의식	79.3(9.7)	57.3(9.2)	82.2(8.7)	58.7(8.9)

주) 미국 남녀대학생의 자의식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Fenigstein(1975)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관계로 통계분석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의식, 긍정적/부정적 생활경험과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참여도 등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요인을 음주행동(음주정도, 문제성 음주)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소거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음주정도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이는 Hull(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alcohol use=quantity\*frequency, quantity/frequency index)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음주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개인적 배경요인과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해 자의식, 부정적 생활경험과 음주행동간의 관계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semipartial R<sup>2</sup>값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 1. 남자대학생 음주자집단

#### 음주정도 분석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통해 음주정도 예측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을 산출한 후 이러한 변인들이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음주정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남학생의 음주정도 예측변인으로는 자의식, 부정적 생활경험, 전공만족도 순으로 다른 변인과 매개됨이 없이 주된 효과를 가지는 것

로 나타났다. 주효과(semipartial R<sup>2</sup>)를 살펴볼 때 자의식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고(F(1, 354)=17.03, p<.001), 그 다음으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 생활경험과 이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밝혀졌다(F(1, 354)=9.37, p<.01).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음주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F(1, 354)=5.36, p<.05). beta값을 볼 때 자의식과 전공만족도가 음수의 값을 가져 자의식 수준이 낮고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빈도가 많고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문제성 음주분석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통해 문제성음주 예측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을 산출한 결과 가족력, 전공만족도, 부정적 생활경험, 자의식, 주관적 학업성취도 등이 의미있는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어 각 변인이 갖는 주효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가족력과(F(1, 352)=16.15,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F(1, 352)=16.04, p<.001) 동일한 수준으로 문제성 음주와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며 설명력을 가졌고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 생활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F(1, 352)=13.97, p<.001). 자의식이 문제성 음주에 대해 가지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음주정도를 예측해주는

표 2. 남자대학생의 음주정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391)

변인	중다상관	R <sup>2</sup>	F값	SR <sup>2</sup>
자기인식(-)	.189	.036	13.26***	.044
부정적 생활경험	.24	.059	11.24****	.024
전공만족도(-)	.271	.073	9.37****	.014

\*\*\*\* p<.0001 \*\*\* p<.001

주) ( )안의 음수는 beta계수

음주정도=음주량\*음주빈도

SR<sup>2</sup>은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설명해 주는 회귀계수임.

것에 비하여 상대적인 설명력이 적었고( $F(1, 352)=6.07, p<.05$ ), 주관적인 학업성취도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는 문제성 음주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 $F(1, 352)=3.07, p>.05$ ) 부정적 생활경험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매개되어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2. 여자대학생 음주자 집단

### 음주정도 분석

여자대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자의식이 음주정도와 문제성 음주의 예측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대학생의 음주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은 과활동이나 씨클활동 등 대학생들 전반에 걸친 참여도와 부정적 생활경험과 이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여대생의 음주정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 225)=3.93,  $p<.05$ ). 과활동이나 씨클생활 등 대학생활에서의 참여도는 부정적 생활경험이 가지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도 음주정도에 영향력을 가져 음주정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5)=5.56, p<.05$ ). 여학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에서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생활경험과 이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높을수록 음주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문제성 음주분석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통해 문제성 음주 예측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여자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를 예언함에 있어 부정적 생활경험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F(1, 226)=13.78, p<.001$ ).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남학생의 문제성음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352)

변인	중다상관	R <sup>2</sup>	F값	SR <sup>2</sup>
자기인식(-)	.332	.110	10.98****	.015
부정적 생활경험	.308	.095	12.40****	.034
전공만족도(-)	.265	.070	13.43***	.040
가족력	.198	.039	14.54***	.040
학업성취도(-)	.349	.122	9.76****	.011

\*\*\*\*  $p<.0001$  \*\*\*  $p<.001$

주) ( )안의 음수는 beta계수

SR<sup>2</sup>은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설명해주는 회귀계수임.

표 4. 여자대학생의 음주정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226)

변인	중다상관	R <sup>2</sup>	F값	SR <sup>2</sup>
부정적 생활경험	.268	.072	5.82**	.023
참여도	.236	.055	6.68***	.016

\*\*\*  $p<.001$  \*\*  $p<.01$

주) 음주정도=음주량\*음주빈도

SR<sup>2</sup>은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설명해주는 회귀계수임.

표 5. 여자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중다상관	R <sup>2</sup>	F값
부정적 생활경험	.232	.053	12.93***

\*\*\* p < .001

주) SR<sup>2</sup>은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설명해 주는 회귀계수임.

##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Hull의 자기인식 모델은 한국대학생의 음주행동 예측에 그다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ll은 자기인식 모델에서 알콜이 자기인식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괴로운 자기인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의식이 낮은 개인에 비하여 알콜소비 정도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ull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던 자의식과 부정적인 생활경험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대학생 음주자의 경우 음주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자의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남자대학생 음주자의 경우에는 자의식이 낮을수록 음주정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한국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의식이 Hull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기제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ull의 이론이 한국대학생의 음주행동 예측에 그다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대학생의 경우 자의식 총점 평균이 미국대학생보다 20점 이상 높아 한국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미국대학생들에 비해 자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대학생 집단에서 자의식이 낮은 집단이라도 미국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의식이 높은 집단에 해당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대학생

집단에서 자의식이 높은 집단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의식이 극히 높은 극소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구에서는 자의식수준과 음주정도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선 자의식이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낮게 나타나 자의식수준과 음주정도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자의식 점수 분포가 매우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자의식과 음주정도간에 곡선적 관계-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빈도와 양이 많아지지만, 일정 수준이상으로 자의식이 높을 경우 음주빈도와 양이 감소하는 경향-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둘째, 자의식이 Hull의 예측과는 다른 기제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Hull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Chassin, 1988)에서 Hull의 이론은 고교생의 음주행동을 예언하지 못하였으며, 알콜남용 가족력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경우 Hull의 예측과는 반대로 자의식이 낮은 집단이 유의하게 음주양과 빈도가 높고 문제성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갖는 숙고적 성향이 지나친 음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가능하게 하여 알콜소비를 유발하기 보다는 최소화시키는 제어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자의식이 높은 개인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음주를 통해 일시적으로 괴로운 자기인식 상태를 벗어나려하기 보다는 이용가능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통해 자기인식 상태를 조절하려 한다면, 높은 자의식 수준은 과도한 알콜소비를 억제하게 만드는 보호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셋째, Hull이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였던 부정적 생활경험이 본 연구에서 타당하게 측정되었는가 하는 점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정적 생활경험이 지니는 의미가 개인의 자아상에 실패, 성공의 의미를 지닐 정도로 유의한 것이었나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2개로 구성된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유무와 이로 인해 받



은 영향력을 7점 척도로 평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부정적 생활경험들의 빈도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부정적 생활경험 개별분석결과 좋지않은 학점을 받은 경험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갖는 중요도가 감소되어 개인의 자아상에 실패, 성공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영향력을 갖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케 한다.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용면에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관한 것이 주류를 형성하여 에릭슨(Erikson)이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으로 내세운 친밀감 형성이 대학생활에서 주요문제로 부각됨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Hull이 가정하였던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 집단에서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자의식 수준과 함께 음주행동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져 자의식수준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음주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남대대학생의 경우 장래의 진로문제, 직업선택과 관련되어 여학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자아상 및 대학생활 적응에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학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인의 자아상에 실패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생활경험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Hull의 자기인식 모델은 부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교성 음주가 주를 이루는 한국의 실정상 부정적 정서극복을 주된 음주동기로 가정하는 Hull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다수(93.3%) 학생들이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며, 이들의 음주동기는 사교적 특성을 가진 것이 주류(87.3%)를 이루고 부정적 정서극복이나 갈등해결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8.9%)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마시는 술은 혼자 마시는

상황과, 친목도모나 기분을 북돋기 위해 마시는 술은 함께 마시는 상황과 연합된다는 연구결과(Cooper et al., 1992)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교성 음주가 자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음주상황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자신을 인식하고 또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자의식을 이루는 중요특성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 음주가 주를 이루는 음주상황에 개입하는 빈도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개입하게 되더라도 자의식 감소나 긴장완화와 같은 알콜로 인한 효과를 얻는 수준까지 음주를 하게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맥락이 갖는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Hull의 가정과는 달리 높은 자의식이 음주억제 요인으로 작용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자의식이 음주행동 예측에 설명력이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음주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자아를 의식하는 공적 자의식과 이로인해 심적 불안을 느끼는 사회적 불안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특성이 여학생의 음주상황 개입에 억제요인으로 작용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문제성 음주 예측변인이 적게 나온 것으로는 여학생들의 음주량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만큼 만취하는 빈도도 낮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음주에 그다지 관용적이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학생 스스로 만취할만큼 술을 마시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Hull의 자기인식 이론은 한국 여성의 음주행동을 이해하는데는 설명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음주행동의 기제가 남성들과는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Hull의 자기인식 모델은 한국대학생의 경우와 같이 사교적 동기에서 마시는 음주보다는 우울감, 불안,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극복이나 긴장완화, 갈등해결과도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음주를 하는 집단에 적용할 때 설명력이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청소년이나 장년층과 같은 연령대가 다른 집단에서도 자의식이 음주행동 예측에 설명력을 가지는지, 나아가 일반인이 아닌 주정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의식이 음주행동 예측에 또다른 차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행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성이(1988).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심포지엄. 민간행.

민병근, 이길홍(1977). 한국 청년습관성 음주자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제2편, 한국 청소년 습관성 음주자의 역학적 조사연구-한국 의과학, 제9권 4호, 35-55.

민병근, 이길홍(1979). 한국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중대 논문집, 제23권, 49-104.

박명윤(1990).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3호, 115-126.

박중규(1988).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0). 대학생의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이길홍(1990).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2호, 33-4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1992). 문화와

주정중독(CULTURE & ALCOHOLISM). 조호철, 김정휘, 이시형(1975): 한국인의 음주상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4: 1-14.

홍종필(1989).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Aneshenssel, C.S., & Huba, G.J.(1983). Depression, Alcohol Use, and Smoking Over One Year: A Four-Wave Longitudinal Caus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34-150.

Barnes, G.M.(1984). Adolescent alcohol 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Their relationship and common parental influ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329-348.

Chassin, L., Mann, L.M., & Sher, K.J. (1988). Self-Awareness Theory,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and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206-217.

Cooper, M.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R., & Mudar, P.(1992).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Cooper, M.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 123-132.

Cox, W.M., & Klinger, E.(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Donovan, J.E., & Jessor, R.(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

- 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90-904.
- Elliot, G.C. (1984).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A Source of Further Distinctions in the Nature of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285-306.
-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olkman, S., & Lazarus, R.S. (1988).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66-475.
- Hatcher, R., Hatcher, S., Berlin, B., Katherine, O., & Richards, J. (1990). Psychological Mindedness and Abstract Reasoning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xploration Using New Instrum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309-326.
- Hull, J.G., Levenson, R.W., & Young, R.D. (1983). Self-Awareness-Reducing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461-473.
- Hull, J.G., & Levy, A.S. (1979).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of the Self: An Alternative to the Duval and Wicklund Model of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6-768.
- Hull, J.G., & Young, R.D. (1983).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uccess-Failure as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in Male Social Drink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97-1109.
- Hull, J.G., Young, R.D., & Jouriles, E. (1986). Applications of the Self-Awareness Model of Alcohol Consumption: Predicting patterns of Use and Ab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90-796.
- Jessor, R., & Jessor, S.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pp. 71-93; 127-142). New York: Academic Press.
- Kandel, D.B. (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235-285.
- Lechner, C.R., & Rosenthal, D.A. Adolescent Self Consciousness and the Imaginary Audience.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10, 291-305.
- Lewis, M. (1991). Ways of Knowing: Objective Self-Awareness or consciousness. *Developmental Review*, 11, 231-243.
- Masten, A.S. (1988). Toward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early adolescence. In M.D. Levine & E.R. McAnane; (Eds.), *Early adolescent transitions* (pp. 385-414). New York: Academic Press.
- Masten, A.S., & Braswell, L. (1989).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1-68).
- Nathan, P.E. (1988). The Addictive Personality is the Behavior of the Addict.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83-188.
- Petersen, A.C., & Ebata, A.(1987). Developmental transition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K. Hurrelmann, F.Kaufmann, & F.Losel(Eds.). *Social Intervention: Potential and constraints* (pp.167-184). Berlin: de Gruyter.
- Sarason, I.G., Johnson, J.H., & Siegel, J.M.(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tacy, A.W., Newcomb, M.D., & Bentler, P.M.(1991). Cognitive Motivation and Durg Use: A 9-Year Longitudinal sut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02-515.
- Tarter, R.E.(1988). Are There Inherited Behavioral Traits That Predispose to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89-196.
- Taylor, S.E., & Brown, J.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 193-210.
- Thoits, P.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Vuchinich, R.E., & Tucker, J.A.(1988). Contributions Form Behavioral Theories of Choice to an Analysis of Alcohol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81-195.

## **The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Negative Life-Events on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Eun-Ju Yang and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negative life-events on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985 college students. The measures of interest included the following: self-consciousness scale, negative/positive life events, personal background information, quantity and frequency of alcohol use and problem drinking. With self-consciousness scores, life event impact rating scores and personal background information as predi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test direct effects of predi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women are more self-conscious than men and Korean college students are much more self-consciou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For men low self-consciousness, greater negative life event ratings, low major satisfaction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drinking in general and also with more problem drinking. Family history of alcohol abuse was also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For women, greater negative life event impact was associated with more drinking as well as more problem drinking. High degree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was also associated with a greater degree of drinking. The interaction between self-consciousness and negative life events was not obtained for either male or female drinkers. Contrary to what has been reported in studies with American subjec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a high level of self-consciousness affect alcohol use of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as an inhibiting factor.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e role of self-consciousness in alcohol use and also to determine whether these findings apply to a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nd adults.